

#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The Structures of *Koryo Jaejo Taejanggyong* and *Taejangmokrok*

柳 富 鉉(Yoo, Boo-Hyun)\*\*

##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分析 |
| 2. 唐·宋代의 經錄          | 5. 結 言           |
| 3. 開寶藏의 刊行과 高麗에서의 受容 |                  |

## < 초 록 >

본고는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構成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唐·宋代의 經錄을 고찰하고, 開寶藏의 刊行과 高麗에서의 受容을 파악하였으며, 再雕藏과 大藏目錄을 分析하였다. 그 결과 再雕藏과 大藏目錄은 顯宗朝 入藏 經典, 文宗朝 入藏 經典, 義天以後 入藏 經典, 再雕藏 入藏 經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要語 : 再雕藏, 大藏目錄, 開寶藏

## <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s of *Jaejo Taejanggyong* (再雕藏) and *Taejangmokrok* (大藏目錄). First, the bibliographies of buddhist scriptures in the Tang and Song Dynasty were examined, and the publication of *Bojanggyong* and its import to the Goryeo were investigated. *Jaejo Taejanggyong* and *Taejangmokrok* are presumed to consist of the Entry Buddhist scriptures of Hyeonjong (顯宗), Munjong (文宗), the post-Euicheon (義天) era and *Jaejo Taejanggyong*.

Key words : *Jaejo Taejanggyong*, *Taejangmokrok*, Tripitaka Kai bao

\* 이 論文은 2006학년도 大眞大學校 學術研究費支援에 依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06년 5월 8일 최초심사일: 2006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 1. 緒言

高麗 再雕大藏經(이하 再雕藏으로 약칭함)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文化遺産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再雕藏에 관한 연구는 꽤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筆者가 관심을 갖고 있는 再雕藏의 構成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鄭駉謨와 姜順愛의 연구<sup>1)</sup>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은 재조장의 구성에 대해서 再雕藏보다는 주로 初雕大藏經(이하 初雕藏으로 약칭함)의 目錄 構成과 復原에 主眼點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구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構成을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먼저 再雕藏에 入藏된 經典의 출처를 상고할 수 있는 唐·宋代의 經錄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再雕藏의 祖本이라 할 수 있는 開寶勅版大藏經(이하 開寶藏으로 약칭함)의 刊行과 高麗에서의 受容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고찰해 본 다음 본격적으로 再雕藏과 大藏目錄을 分析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이상의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構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1) 鄭駉謨, 高麗佛典目錄研究, 清浪鄭駉謨博士 華甲紀念論文集編纂委員會, 1990.  
姜順愛,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7집(1994).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연구 - 開元釋教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1輯(1995).  
姜順愛,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2輯(1996).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構成의 累加的 性格에 관한 研究」, 大藏經의 世界, 東國譯經院, 1999.

## 2. 唐·宋代의 經錄

### 1) 開元釋教錄 20卷(이하 開元錄으로 약칭함)

開元錄은 唐代 智昇이 西崇福寺에 안치되고 있던 佛典과 그 이외의 經典을 수집하여 玄宗 開元 18년(730)에 편찬한 目錄이다. 卷1부터 卷10까지는 總括群經錄으로 시대별·역자별로 순서에 따라 東漢 明帝 永平 10년(67)부터 唐代 開元 18년(730)까지 총 664년간 176명의 譯經僧이 漢譯한 大小乘의 經律論 2,278部 7,046卷을 기재하고 있다. 卷11부터 卷20까지는 別分乘藏錄으로 標準入藏目錄과 現藏入藏目錄에 해당된다. 특히 卷11에서 卷13까지의 有譯有本錄은 智昇이 수집한 經典에 대해서 考訂을 하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여 入藏시킨 경전이다. 每部에 經名, 卷數, 著譯者, 合帙 및 긴요한 考釋을 기록하였다.

卷19·20의 入藏錄은 有譯有本錄의 著錄이 비교적 번잡하기 때문에 智昇이 다시 入藏錄을 편찬하여 卷19·20으로 첨부하였다. 이것은 有譯有本錄 중에서 每經의 經名, 卷數, 合帙을 著錄하고 이외에 사람들이 藏經을 조직할 때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異經名, 異卷 및 紙數 등의 내용을 더한 것이다. 現行本 開元錄의 이 入藏錄에는 1,076部 5,048卷 480帙<sup>2)</sup>의 경전이 기재되어 있다.

### 2)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 3卷(이하 續開元錄으로 약칭함)

續開元錄은 唐代 圓照가 德宗 貞元 11년(795)에 편찬한 目錄이다. 본 目錄의 입장록에는 開元 18년(730)부터 德宗 貞元 10년(794)까지 漢譯된 經論 및 念誦法 193卷, 經論疏義 64卷, 貞元新集古今制令碑表記 86卷 도합 343卷에 본 目錄

2) 참고로, 大唐保大乙巳歲續貞元釋教錄에는 개원록 입장록에 입장된 경전 1,076部 5,048卷이 480帙이 아닌 481帙로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본 目錄에는 開元錄 이후의 경전인 貞元錄藏의 경전들이 千字文 字號에서 제 482帙에 해당되는 稿函부터 편성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원록 입장록에 입장된 경전 1,076部 5,048卷은 480帙 혹은 481帙로 編制되어 유통되었던 듯하다.

2卷을 더해서 총 345卷이 입장되어 있다 참고로 본 목록에 수록된 경전은 대체로 密敎經典들이다.<sup>3)</sup>

본 목록은 貞元 11년(795)에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본(趙城藏, 房山石經, 再雕藏에 수록된 續開元錄)은 貞元 16년(800) 貞元新定釋敎目錄이 편찬된 즈음에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 및 開元錄 이후에 漢譯된 경전으로서 貞元新定釋敎目錄에 처음으로 입장된 경전들도 追記되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 3) 貞元新定釋敎目錄 30卷(이하 貞元錄으로 약칭함)

貞元錄은 唐代 圓照가 德宗 貞元 16년(800)에 편찬한 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東漢 明帝 永平 10년(67)부터 唐 德宗 貞元 16년(800)까지 漢譯된 大小乘 經律論, 賢聖集傳 등 총 2,447部 7,399卷이 기재되었고 본 목록의 入藏錄에는 총 1,258部 5,390卷 510帙이 입장되었다

여기에는 開元錄과 續開元錄에 遺漏되거나 續開元錄 이후에 漢譯된 것으로서 17部 78卷의 경전<sup>4)</sup>들이 증가되었다.

### 4) 大唐保大乙巳歲續貞元釋敎錄 1卷(이하 續貞元錄으로 약칭함)

續貞元錄은 五代 南唐 의 恒安 이 保大 3년(945)에 편찬한 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開元錄 이후 貞元錄에서 새로 입장된 불전과 開元錄, 貞元錄에서 遺漏된 불전 총 140部 413卷이 藁합부터 富합까지 모두 43帙로 나뉘어 입장되어 있다.

3) 佛光大辭典(慈怡主編,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이하 同), p.6862.

4) 梁代 無名氏 譯 大佛名經 1部 16卷

唐代 法琳 譯 別傳 1部 3卷

唐代 義淨 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樂事 등 7部 50卷

唐代 跋日羅菩提 譯 金剛頂經瑜伽修習毘盧遮那三摩地法 등 4部 4卷

唐代 無能勝 譯 大威力烏桓瑟摩明王經 등 3部 4卷

唐代 法月 譯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1部 1卷

5) 大中祥符法寶錄 22卷(이하 祥符錄으로 약칭함)

祥符錄은 北宋의 趙安仁, 楊億, 惟淨 등이 大中祥符6년(1013)에 편찬한 목록인데, 現存本은 卷1, 2, 5, 9, 19, 21, 22 등이 缺失되었고, 卷6, 10 두 卷은 殘缺된 상태이다. 본 목록에는 太平興國 7년(982)부터 大中祥符 4년(1011)까지 新譯된 경전<sup>5)</sup> 및 宋 太宗의 御製 등 222部 413卷이 기재되어 있다.

6) 天聖釋教總錄 3책(이하 天聖錄으로 약칭함)

天聖錄은 北宋의 惟淨 등이 天聖 5년(1027)에 편찬한 목록인데, 現存本은 中·下 2책으로서 上책이 결실된 殘缺本이다. 이 목록에는 東漢부터 天聖 5년(1027)까지 漢譯된 경전 및 중국에서 찬술된 불전 등 1,496部 6,208卷 602帙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 景祐新修法寶錄 21卷(이하 景祐錄으로 약칭함)

景祐錄은 北宋의 呂夷簡 등이 景祐 4년(1037)에 편찬한 목록인데, 現存本은 卷2, 5, 7, 11, 15, 19, 20 등 7卷이 缺失되었고, 卷8, 10 두 卷은 殘缺된 상태이다. 이 목록에는 大中祥符 5년(1012) 이후 景祐 4년(1037)까지 漢譯된 경전 19部 150卷이 기재되었다.

### 3. 開寶藏의 刊行과 高麗에서의 受容

開寶藏은 주지하듯이 宋代 開寶 4년(971)부터 太平興國 8년(983)까지 완성된 本藏과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된 續刊을 포함한 北宋官版大藏經을 일컫는

5) 이들 신역 경전은 대체로 密教 經典들이다(郭朋, 『宋元佛敎』, 福建人民出版社, 1985. p.13).

것이다.

開寶藏의 本藏 480帙은 開寶 4년(971) 益州(지금의 四川省 成都)에서 開元錄의 入藏錄에 의거하여 編次된 寫本 大藏經을 底本으로 하여<sup>6)</sup> 그 雕造가 시작되어 太平興國 8년(983)에 완료되었다. 이 때 刻成된 경판은 開元錄에 準據된 大藏의 1,076部 5,048卷 480帙에 해당되는 13萬餘板이었고, 同年에 開封의 印經院에 안치되어 印刷·流通되었다. 이후 熙寧 4년(1071) 3월에 印經院은 폐지되었고 同年 8월에는 經板이 顯聖寺 聖壽禪院으로 이관되었다.<sup>7)</sup> 이후 欽宗 靖康 원년(1126) 北宋이 멸망할 때 아마도 이 경판은 운명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開寶藏의 續刊은 일차적으로 咸平 元年(998) 雲勝의 요청으로 咸平 初年(998 - )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에는 1,000餘卷의 佛典이 속간되었는데, 開元錄에 수록되지 않은 貞元錄藏의 經<sup>8)</sup> 및 宋代 4명의 三藏이 漢譯한 宋新譯經<sup>9)</sup> 그리고 御製<sup>10)</sup>와 三藏의 集傳<sup>11)</sup> 등이었다.<sup>12)</sup> 이 중 貞元錄藏 經<sup>8)</sup>의 鑄板은 景祐 3년(1036)에 呂夷簡等의 요청으로 校訂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리고 崇寧 4년

6) 羅紹, “《契丹藏》與《開寶藏》之差異,” 文物. 1993年 第8期. p.61.  
7)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5집(2003), 116.  
8) 이 貞元錄藏의 經<sup>8)</sup>은 開元錄에 遺漏된 經典 1帙과 開元錄 이후 唐 玄·肅·代·德宗 등 四朝에 걸친 72명의 三藏이 漢譯한 經<sup>8)</sup> 23帙 그리고 大唐開元經教廣品歷章·續開元錄 3帙 등 총 27帙로서 續開元錄에 입장된 것이다.  
9) ① 이 宋新譯經은 太平興國 7년(982) 23일의 上進부터 咸平 2년(999) 11월 23일의 上進까지 18년 동안 譯經院(傳法院)에서 漢譯된 287卷의 新譯 經典으로서 祥符錄에 수록되어 있다.  
② 이 宋新譯經의 刊行에 대해서 呂澂은 雍熙 2년(985)부터 板刻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p.201), 이것은 佛祖統紀의 기록(“雍熙二年 上覽新譯經謂宰臣曰 …… 新譯經論並刊板印行” (佛祖統紀 卷43))에 의거한 듯 하다.  
10) 이 御製는 宋 太宗의 御製로서 祥符錄에 수록되어 있다.  
11) 이 三藏의 集傳은 再雕藏과 趙城藏(趙城藏은 1139년(金의 天眷 2년, 南宋의 紹興 9년)에 雕造를 시작하여 1173년(大定 13, 乾道 9)에 완성된 것이다)을 통해 보면 法苑珠林 寶林傳 등이 해당되는데 再雕藏과 趙城藏 이전에 이들을 수록하고 있는 經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12) “咸平元年上表 乞續編入開元年智昇撰錄後來唐玄肅代德四朝七人三藏所翻 并聖朝四人 翻譯 并聖製三藏集傳一千餘卷 今取聖旨 集補之(『寶林傳』卷第二 末尾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73쪽, 1984, p.617))

(1106) 惟白은 속간 가운데 宋新譯經과 貞元錄藏의 경전을 각각 “經傳 30帙”<sup>14)</sup>과 “未入藏經 27帙”<sup>15)</sup>로 지칭하기도 하였다.<sup>16)</sup>

이후 大中祥符, 天聖,<sup>17)</sup> 景祐, 元豐, 紹聖,<sup>18)</sup> 政和 年間에도 당시에 漢譯 新譯經 및 불전들이 지속적으로 속간되어 大藏 에 편입되었다.<sup>19)</sup>

- 13) “…呂夷簡等請校正元錄經鏤板 詔從之”(『景祐法寶總錄』景祐3年條의 記事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1984. 73쪽. p.598).
- 14) “經傳 30帙”은 현존 趙城藏과 再雕藏의 杜(481) 함부터 穀(510) 함까지의 30帙 에 해당된다
- 15) “未入藏經 27帙”은 원래 天聖 5년(1027) 惟淨이 天聖錄을 편찬하면서 續開元錄에 準據하여 27帙로 編帙된 것이다. 현존 趙城藏 祿(514) ~奄(537)함의 貞元錄藏 경전 24帙과 振(511)·纓(512)·世(513)함(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 과 正元續開元錄 3卷)의 3帙을 더한 27帙이 바로 “未入藏經 27帙”에 해당된다. 그리고 再雕藏에서는 策(521) ~實(524) 함의 4帙과 礪(529)~合(548)함의 20帙 및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이 수록되어 있었던 振(511)·纓(512)·世(513)함 3帙에 해당된다. 한편 “未入藏經 27帙”의 일부로서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과 함께 世(513)함에 編制되어 있던 正元續開元錄 3卷이 再雕藏에서는 貞元續開元錄 3卷으로서 惠(556)함에 編制되어 있다.
- 16) “若通前計大小乘經律論 總五千四十餘卷 四百八十帙 以開元釋教錄爲準 則今撮略品目所集也 其餘隨藏添賜經傳三十帙 未入藏經二十七帙 天下寺院藏中 或有或無 印經官印板却足故 未錄略在 知者可鑿耳”(惟白 編『大藏綱目指要錄』卷第八(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56쪽. 1984. p.245)).
- 17) 天聖 4(1026)년에는 天台宗과 法相宗의 著述이 大藏에 편입되었다(天聖四年夏四月 內出天台智者科教經論一百五十卷 令三藏惟淨集左右街僧職京城義學文章沙門二十人 同加詳定編錄入藏(景祐錄 卷7) 및 天聖四年五月 復出唐慈恩寺翻經法師窺基所著經論章疏四十三卷 令編連入藏(景祐錄 卷7)).
- 18) 紹聖 2년(1095)에는 宋代 智吉祥·金總持가 漢譯한 大乘智印經이 속간되었다(趙城藏 鴈函에 수록되어 있는 宋代 智吉祥·金總持가 漢譯한 大乘智印經 卷第5의 末尾에는 “紹聖二年(1095)正月 日顯聖寺印經院奉聖旨雕造”라는 原刊記가 보존되어 있다).
- 19) 여기에 대해서는 呂澂의 다음의 글이 참고 된다.  
“咸平 2년(999)부터 이후로 나온 宋代 新譯佛典은 祥符·天聖·景祐 등 역대로 著錄이 있었고 또한 매년 刊각되었지만 散帙된 채 單卷으로 通行되어 政和年間 (1111-1117)까지도 계속되었다. 현존하는 金代覆刻本 金總持譯『法乘義決定經』의 끝에는 ‘相吉祥·律密·法稱이 공동 漢譯하고 白時中이 潤文을 했다’고 적혀 있다. 송나라 제도에 재상을 潤文使로 輔任하였는데, 백시중은 政和 初年에 집정하였으니 ‘백시중이 潤文을 했다’고 한 것은 마땅히 그 때일 것이다. 그러므로 新譯의 刊각은 거의 北宋과 운명(960~1126)을 같이 하였고, 閩·折의 各版 또한 新譯을 다 일일이 편입할 수가 없었다 『宋會要』에 이르기를 ‘元豐元年(1077)에 譯經三藏이 날로 일이 없어져서 후계자가 없게 되자 5년(1082)에 마침내 譯經司使를 폐지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元豐 이후에는 전혀 新譯이 없었던 것 같으나 사실이 아니다”(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이와 같은 개보장의 본장과 속간은 高麗에 대부분 수용되었는데 그 규모와 과정을 高麗 文宗의 아들인 大覺國師 義天<sup>20)</sup>의 기록<sup>21)</sup>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義天은 代宣王諸宗教藏雕印疏에서 顯宗朝에서는 五千軸의 秘藏을 雕造했고, 文宗朝에서는 千萬頌의 契經을 간행했다고 하였다. 또한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에서는 義天은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미 開元錄과 續開元錄에 수록된 經律論 및 宋新譯經 총 6천여 卷의 경전이 간행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 4.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分析

이제부터는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構成을 고찰하기 위해 再雕藏과 大藏目錄을 일정한 단위의 函次[帙號]別로 구분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天(1)함 ~ 英(480)함

天(1)함 ~ 英(480)함의 경전<sup>22)</sup>은 開元錄의 入藏錄에 의거하여 編次된 寫本

大乘文化出版社, 1977. p.204).

- 20) 義天은 文宗 9년(1055)에 태어나 肅宗 6년(1101)에 입적하였다. 文宗 19년(1065)에 출가하여 文宗 21년(1067)에 僧統이 되었다. 宣宗 1년(1084)에 宋에서 유학을 하였다. 宣宗 3년(1086)에 귀국하여 興王寺 住持가 되어 教藏都監을 설치하고 續藏經을 간행해 냈다. 宣宗 11년(1094)에는 國師에 책봉되었다.
- 21) ① 代宣王諸宗教藏雕印疏：“顯祖則雕五千軸之秘藏 文考乃鏤千萬頌之契經 正文雖布於近遐 章疏或幾乎墜失”
- ②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敬白諸善友緣本國崇奉佛教日已久矣 其開元釋教錄智昇所撰，貞元續開元釋教錄圓照所撰兩本所收經律論等 洎大宋新翻經律論總六千來卷 并已雕鏤施行訖 自古聖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p.704에서 再引用)
- 22) 趙城藏에는 天(1)함 ~ 英(480)함에 해당된다.  
본고에서 분석의 참고로서 언급된 ‘趙城藏’은 1139년(金의 天眷 2년 南宋의 紹興 9년)에 雕造를 시작하여 1173년(大定 13, 乾道 9)에 완성된 것이다. 이 趙城藏은 開寶藏의 覆刻本인데, 裝訂은 卷軸裝이며, 每版 23行, 每行 14字로서 開寶藏의 기본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趙城藏에 수록된 경전은 거의 7,000 餘 卷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380 여권이다. 이 趙城藏은 현재 4種의 印本이 남아 있으며 中華大藏經에 그 주된 底本으로서 影印·수록

大藏經을 저본으로 해서 雕造된 開寶藏<sup>23)</sup>의 本藏이 거의 그대로 再雕藏에 수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天(1)함 ~ 英(480)함의 구성은 經, 律, 論, 聖賢傳記錄 등 1,076部 5,048卷 480帙 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경전은 거의 開元錄에 수록되어 있다. 단 일부 경전에 대해서는 再雕藏이 雕造될 때 守其法師에 의해서 校勘의 과정을 거쳐 다소의 변동이 발생한 상태이다.

## 2) 杜(481)함 ~ 黻(510)함

杜(481)함 ~ 黻(510)함의 경전<sup>24)</sup>은 太平興國 7년(982) 23일부터 咸平 2년(999) 11월 23일까지 18년 동안 譯經院(傳法院)에서 漢譯된 287卷의 新譯經(宋新譯經 A)으로서 祥符錄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新譯經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崇寧 4년(1106) 惟白에 의해서 이른바 “經傳 30帙”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이 杜(481)함 ~ 黻(510)함의 新譯經 30帙은 원래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咸平初年(998 - )에 開寶藏에 編入된 것인데 이후 30帙의 경전은 물론 그 函次[帙號]까지 再雕藏에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新譯經 30帙의 千字文帙號와 동일한 函次 내에서 경전의 배열 순서가 開寶藏의 완전한 覆刻本인 趙城藏의 그것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3) 振(511)함 ~ 侈(515)함

振(511)함 ~ 侈(515)함의 경전은 新集藏經音義隨函錄 30 책 5帙인데 後晋 天福 5년(940)에 可洪이 開元錄 入藏錄의 편차에 의거해 편찬한 音義書이다. 이 경전은 再雕藏에서 새로 編入된 것이다. 守其의 校正別錄에 의하면 이전 初雕藏에는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 3帙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되어 있다. 이 4종의 印本은 즉 山西省 趙城縣 廣勝寺에서 발견된 廣勝寺本 4,827卷, 원래 燕京의 大寶集寺에 收藏되어 있다가 西藏의 薩迦北寺에서 발견된 大寶集寺本 540卷, 그리고 廣勝寺本에 섞여 있는 興國院本과 天寧寺本 등인데 모두 天寧寺에서 雕造된 印本이다.

23) 羅炤, “《契丹藏》與《開寶藏》之差異,” 文物. 1993年 第8期. p.61.

24) 趙城藏에는 杜(481)함 ~ 黻(510)함에 해당된다.

3-1) 初雕藏의 振(511)함 ~ 侈(515)함

初雕藏 振(511)함 ~ 侈(515)함의 경전인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 3帙<sup>25)</sup>은 唐代 玄逸이 편찬한 것으로 開元錄의 入藏錄 편차에 따라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의 概要를 기재하고 敍說을 붙인 저술이다. 이 경전은 續開元錄에 수록되어 있는데<sup>26)</sup> 원래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咸平 初年(998 - )에 開寶藏에 編入된 이후 初雕藏에 수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전은 崇寧 4년(1106) 惟白이 말한 “宋入藏 27帙” 가운데 3帙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4) 富(516)함 ~ 輕(520)함

富(516)함 ~ 輕(520)함의 경전<sup>27)</sup>은 宋 太宗의 御製로서 富(516)함의 御製蓮華心輪廻文偈頌 25卷(合11卷<sup>28)</sup>), 車(517)함 ~ 肥(519)함의 御製秘藏詮 30卷,<sup>29)</sup> 輕(520)함의 御製逍遙詠 11卷, 御製緣識 5卷 등이다. 이들 御製는 祥符錄

25) 趙城藏에는 振(511)함 ~ 世(513)함에 해당된다.

26) 續開元錄은 房山石經, 趙城藏, 再雕藏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房山石經에 수록된 續開元錄에는 廣品歷章이 기재되어 있고, 趙城藏에 수록된 續開元錄에는 趙城藏의 이 부분이 훼손되어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훼손된 부분이 廣品歷章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된다. 再雕藏에 수록된 續開元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27) 趙城藏에는 并(616)함 ~ 岱(620)함 및 亭(624)함에 해당된다. 趙城藏의 并(616)함부터 宗(618)함에는 御製秘藏詮 30卷, 御製佛賦 2卷, 御製詮源歌 1卷이 수록되어 있고, 恒(619)함에는 御製蓮華心輪廻文偈頌 25卷이 수록되어 있으며, 岱(620)함에는 御製逍遙詠 11卷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亭(624)함에는 御製緣識 5卷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并(516)함부터 亭(624)함까지에서 중간의 禪(621)함부터 云(623)함까지는 景德傳燈錄 30卷이 수록되어 있다.

28) “合11卷”은 再雕藏 大藏目錄에 “富函入十一卷” “御製蓮華心輪廻文偈頌二十五卷 合十一卷”으로 기재되어 있다. 내용상으로는 25卷으로 편제된 것이 형태상으로는 11卷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29) 御製秘藏詮 30卷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卷1~卷20 : 御製秘藏詮 20卷  
 卷21 : 御製佛賦 2首 · 御製詮源歌 1首 1卷  
 卷22~卷25 : 御製秘藏詮幽隱律詩 4卷  
 卷26~卷29 :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卷  
 卷30 :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卷  
 참고로 趙城藏에는 御製佛賦 1卷과 御製詮源歌 1卷은 御製秘藏詮 卷21에 편입되어 있는 것 이외에 同名 單經으로 別出되어 있기도 하다.

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祥符錄 卷18)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은 太平興國 8년(983)에 완성되어 同年 3월에 20人이 註解를 한 다음 編聯入藏된 것이고, 御製秘藏詮 30卷 가운데 秘藏詮 20卷, 秘藏詮佛賦[御製佛賦]·歌行[詮源歌] 1卷은 端拱 원년(988) 12월에 56人이 註解를 한 다음 編聯入藏되었으며, 또 御製秘藏詮 30卷 가운데 秘藏詮幽隱律詩 4卷·秘藏詮懷感詩 4卷·秘藏詮懷感廻文詩 1卷 그리고 逍遙詠 11卷은 端拱 2년(989) 11월에 12人이 註釋을 한 다음 編聯入藏되었고, 緣識 5卷은 至道 원년(995) 3월에 印經院에서 開板 模印 되어 編聯入藏 되었된 것이다.<sup>30)</sup> 또한 이들은 咸平 初年(998 - )에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編入되었고 이후 再雕藏에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 5) 策(521)합 ~ 實(524)합

이 函次의 新譯大方廣佛華嚴經 40卷<sup>31)</sup>은 貞元 13년(797)에 般若金剛이 漢譯하여 貞元 15년(799) 貞元錄에 新編·入錄된 것이다. 이 경전은 續開元錄, 貞元錄, 續貞元錄에 수록되어 있으며,<sup>32)</sup> 咸平 初年(998 - )에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編入되었고 이른바 “未入藏 27帙” 가운데 4帙로서 후에 再雕藏에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 6) 勒(525)합 ~ 銘(528)합

勒(525)합 ~ 銘(528)합의 경전 新華嚴經論 40卷<sup>33)</sup>은 實叉難陀가 漢譯한 新

30) 한편, 이 御製 가운데 御製蓮華心輪廻文偈頌, 御製秘藏詮, 御製逍遙詠은 太平興國 8년(983)에 近臣에게 宣示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太平興國八年 …… 詔以御製蓮華心輪廻文偈 秘藏詮 逍遙詠宣示近臣”(佛祖統紀 卷43), 御製秘藏詮, 緣識, 逍遙詠에 대해서는 至道 2년(996)에 註釋을 붙여 入藏·頒行했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至道二年 詔以御製秘藏詮二十卷 緣識五卷 逍遙詠十卷 命兩街箋注入大藏頒行”(佛祖統紀 卷43)).

31) 趙城藏에는 溪(530)합 ~ 佐(533)합에 해당된다.

32) 新譯大方廣佛華嚴經 40卷은 본래 貞元 15년(799) 貞元錄에 처음으로 入藏된 것이며, 續開元錄의 수록은 追記 또는 追加 入藏에 해당되고, 續貞元錄 수록은 續貞元錄에서 입장 수록된 것이다.

33) 趙城藏에는 新華嚴經論 40卷 대신 大方廣佛華嚴經合論 120卷이 踐(581)합부터 刑(592)합까지 수록되어 있다. 大方廣佛華嚴經合論 120卷은 開元寺 志寧이 經과 論을 합하여 大中年

華嚴經에 대하여 唐代 李通玄이 開元 17년(729)에 그 뜻을 밝히고 경문을 해석한 것이다. 撰者 李通玄이 입적한 후 唐 大曆 9년(774)에 僧 廣超가 逝多寺에서 傳寫하여 유통하기 시작하였다. 이 경전은 開元錄에 遺漏된 것으로서 續貞元錄에 수록되어 있다.

7) 碯(529)합 ~ 合(548)합

이 函次에 수록된 경전 34)은 碯(529)합의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 1帙<sup>35)</sup>과 溪(530)합 ~ 合(548)합의 開元錄 이후 玄宗, 肅宗, 太宗, 德宗 등 4朝에서 漢譯된 경전 19帙 총 20帙이다. 이 경전들은 續開元錄, 貞元錄, 續貞元錄, 天聖錄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咸平 初年(998 - )에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編入되었으며 이들 경전의 鏤板은 景祐 3년(1036)에 呂夷簡 등의 요청으로 校訂되기도 하였다. 이 경전들은 바로 貞元錄藏의 경전으로서 이른바 “未入藏 27帙”<sup>36)</sup> 가운데 20帙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碯(529)합 ~ 合(548)합의 20帙은 그 函次別 배열 순서에 있어서 續開元錄, 貞元錄, 續貞元錄, 天聖錄 가운데 續貞元錄 入藏錄의 배열 순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sup>37)</sup>

中(847~859)에 완성한 것으로 宋 乾德 5년(967)에 慧研이 王旨를 받들어 開印되었다.

34) 趙城藏에는 祿(514)합 ~ 奄(537)합에 해당된다.

35) 再雕藏의 대장목록 碯(529)합에는 아래와 같이 수록되어 있다.

- 穢跡金剛法禁百變法 1卷 阿質達霰譯
- 穢跡金剛說神通大滿陀羅尼法術靈要門 1卷
- 大威力烏菴澀摩明王經 3卷
-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1卷 法月譯
- 金剛頂瑜伽修習毘盧遮那三摩地法 1卷, 金剛智譯
-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身呪本 1卷
-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本 1卷
- 不動使者陀羅尼秘密法 1卷 등 총 8部 9卷

36) 趙城藏의 正元續開元釋教錄에는 이른바 “未入藏 27帙”이 전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再雕藏의 貞元續開元錄에는 廣品歷章 3帙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新譯華嚴經 40卷은 별도로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37) 참고로 趙城藏에서 이 20帙의 函次別 배열 순서는 趙城藏·房山石經에 수록된 正元續開元錄의 入藏錄 및 天聖錄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再雕藏에 수록된 貞元續開元錄과는

8) 濟(549)함 ~ 綺(553)함

이 函次에 수록된 5帙<sup>38)</sup>의 경전<sup>39)</sup>은 唐代 義淨이 證聖 원년(695)부터 景雲 2년(711)까지 漢譯한 小乘律 7部 50卷인데, 開元錄에 遺漏된 것으로서 貞元錄, 續貞元錄에 수록되어 있다.

9) 廻(554)함, 漢(555)함

이 函次에 수록된 大宗地玄文本論 20卷과 釋摩訶衍論 10卷은 再雕藏에서 새로 編入된 것인데, 守其의 校正別錄에 의하면 원래 初雕藏에는 佛名經 18卷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廻(554)함의 大宗地玄文本論은 陳代 永元(499)~ 太建(569) 년간에 印度의 馬鳴菩薩이 짓고 眞諦가 漢譯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唐代까지의 經錄에는 나타나지 않고 再雕藏에 비로소 수록되었다. 宋藏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至元錄에는 8卷으로 新編入錄이란 註가 달려 있으며, 至元錄 卷9에는 본 경전이 祥符錄에 처음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明藏에는 “八卷今作四卷”이란 註를 달고 編入되어 있다. 대체로 作者와 譯者는 모두 假託이고 불교용어도 더러 보이지만 道教類에 속하는 경전이다.<sup>40)</sup> 漢(555)함의 釋摩訶衍論은 印度의 龍樹菩薩이 짓고 姚秦의 伐提摩다가 漢譯한 것인데 大乘起信論의 註釋書이다.

약간 차이가 있다.

38) 再雕藏의 大藏目錄 濟(549)함 ~ 綺(553)함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濟(549), 弱(550)함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樂事 20卷 缺二卷 三藏沙門義淨譯
- 扶(551), 傾(552)함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20卷 三藏沙門義淨譯
- 綺(553)함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出家事 4卷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安居事 1卷 同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隨意事 1卷 同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皮革事 2卷 同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羯耻那衣事 1卷 同譯

39) 趙城藏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0) 佛光大辭典, p.796.

9-1) 初雕藏의 廻(554)합, 漢(555)합

初雕藏의 廻(554)합, 漢(555)합에 수록된 佛名經 18卷<sup>41)</sup>은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으로서 貞元 15년(799)에 大藏에 入藏되어 貞元 16년(800)에 貞元錄에 수록되었고,<sup>42)</sup> 후에 續貞元錄에도 수록되었다. 그런데 貞元錄과 續貞元錄에는 16卷本이 수록되어 있고, 단지 續貞元錄에서만 18卷本을 “或本”으로 기재되고 있다{“大佛名經一十六卷或十八卷附梁錄未詳作者”(續貞元錄 第27張)}.

10) 惠(556)합

이 惠(556)합에는 續開元錄 3卷, 續貞元錄 1卷, 釋法琳別傳 3卷<sup>43)</sup>이 수록되어 있다. 續開元錄은 續開元錄, 貞元錄, 續貞元錄에 入藏된 것으로 이른바 “未入藏 27帙”의 일부다. 續貞元錄은 續貞元錄에 수록되었다. 釋法琳別傳은 貞元錄, 續貞元錄에 수록된 것으로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이다.

11) 說(557)합 ~ 丁(560)합

이 函次의 貞元錄 30卷<sup>44)</sup>은 貞元錄, 續貞元錄에 수록되어 있다.

12) 俊(561)합 ~ 密(563)합

이 函次의 校正別錄 30卷은 再雕藏에서 새로 편입된 것이다. 본 校正別錄의 校勘記에 의하면 원래 初雕藏에는 一切經源品次錄 30卷 3帙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12-1) 初雕藏의 俊(561)합 ~ 密(563)합

初雕藏의 俊(561)합 ~ 密(563)합에 수록된 一切經源品次錄 30卷<sup>45)</sup>은 唐代

41) 趙城藏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2) 貞元錄 卷30.

43) 趙城藏에는 續開元錄만이 이른바 “未入藏 27帙”의 일부로 廣品歷章과 함께 世(513)함에 수록되어 있고, 續貞元錄과 釋法琳別傳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44) 趙城藏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의 從梵이 大中 9년(855)부터 咸通 원년(860)까지 貞元錄 入藏錄에 의거하여 集錄한 저술이다. 續貞元錄에 수록되어 있다.

### 13) 勿(564)합 ~ 寔(567)합

이 函次의 大般涅槃經 36卷<sup>46)</sup>은 이른바 南本涅槃經이고, 遐(121)합 ~ 體(124)합에 입장된 大般涅槃經 40卷本은 이른바 北本涅槃經이다. 그런데 開元錄 貞元錄에는 40卷本인 北本涅槃經은 정식으로 입장되어 있고, 36卷本인 南本涅槃經은 40卷本인 北本涅槃經의 或本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여러 기록<sup>47)</sup>을 통해 보면 大般涅槃經은 원래 北涼의 曇無讖(385~433)이 처음 한역할 때 13品 40卷本으로 완성하여 北方에서 유통되었고, 宋文帝 元嘉年中((424~451)에는 范慧[惠]嚴, 崔慧[惠]觀, 謝靈運 등에 의해서 25品 36卷本으로 改定<sup>48)</sup>되어 江南에서 유통되었다. 그래서 이후 40卷本은 北本涅槃經으로 불리고 36卷本은 南本涅槃經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두 본을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初雕藏에 수록된 北本涅槃經과 再雕藏에 수록된 北本涅槃經, 南本涅槃經 그리고 趙城藏에 수록된 北本涅槃經을 비교해 보면 두 본 가운데 어느 한 본은 다른 한 본을

45) 趙城藏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6) 趙城藏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7) “大般涅槃經 四十卷 或三十六卷 四帙 北涼(416~423) 天竺三藏曇無讖 於姑藏譯 第五單重合譯 其涅槃經 宋文帝代元嘉年中(424~451) 達于建業 時有豫州沙門范慧嚴 清河沙門崔慧觀 陳郡處士謝靈運等 以讖前經品數疎簡 乃依舊泥洹經加之品目 文有過質 頗亦改治 結爲三十六卷 行於江左 比於前經 時有小異 有論一卷 略釋大經 又論一卷 釋本有今無一偈”(開元錄 卷11)

“大般涅槃經 四十卷 或三十六卷 四帙 北涼天竺三藏曇無讖 於姑藏譯 第五單重合譯 其涅槃經 宋文帝代元嘉年中 達于建業 時有豫州沙門范惠嚴 清河沙門崔惠觀 陳郡處士謝靈運等 以讖前經品數疎簡 乃依舊泥洹經加之品目 文有過質 頗亦改 結爲三十卷 行於江左 比於前經 時有小異 有論一卷 略釋大經 又論一卷 釋本有 今無一偈”(貞元錄 卷21)

“… 始於沮渠蒙 邀請曇無讖及猛法師兩度翻譯 共十三品成四十軸 行之北方 至宋文帝 勅嚴觀二師同謝康樂更共治定 開爲二十五品 縮爲三十六軸 行之江南…(科南本涅槃經序 元崇聖院傳天台宗教校經沙門 師正 述)”(中華大藏經, 14 책, p.463)

48) 이 改定은 주로 品數와 卷數에 있어서의 개정이었다. 두 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본문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었고 단지 미세한 교정이 있었을 뿐이다.

저본으로 해서 관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開寶藏<sup>49)</sup>이 雕造될 때 두 본 중에서 어느 한 본이 먼저 刻成되었고, 이후 이 본을 저본으로 해서 品數와 卷數 그리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다른 한 본이 板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0)</sup> 또한 再雕藏에서도 이 두 본이 모두 수용되어 北本涅槃經은 遐(121) 함 ~ 體(124)함에 입장되어 있고, 이 南本涅槃經은 이 函次에 남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 14) 寧(568) 함 ~ 楚(570) 함

이 函次의 佛名經 30卷<sup>51)</sup>은 梁代(502~557)의 失譯으로서 菩提流支 譯 12卷本 佛名經을 增廣 한 것인데 그 출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15) 更(571) 함

이 函次의 大藏目錄 3卷은 再雕藏의 入藏目錄이다. 원래는 初雕藏의 入藏目錄이었는데, 守其法師가 再雕藏을 雕造할 때 이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加減을 하여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16) 霸(572) 함 ~ 何(585) 함

이 函次의 法苑珠林 100卷<sup>52)</sup>은 唐 道世(?~683)의 찬술로서 唐 高宗 總章 원년(668)에 완성되었다. 經·律·論을 위시하여 外典에 이르는 수백 종의 광범위한 자료를 유별로 기술한 것이다. 이 경전은 咸平 初年(998 - )에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編入된 것인데 高麗에서는 뒤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文宗朝에 입장된 것으로 추정된다.<sup>53)54)</sup>

49) 開寶藏에는 開元錄에 正本이 아닌 或本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전이 입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柳富鉉, “開寶藏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5집(2003), 113). 그러므로 본래 開寶藏에는 南本涅槃經이 입장 유통되었고 후에 北本涅槃經이 대체 입장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50) 여기에 대해서는 稿를 달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51) 趙城藏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52) 趙城藏에는 起(593)함 ~ 威(602)함에 해당된다.

53) 반면 小野玄妙는 文宗朝以後에 續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17) 遵(586) 함 ~ 精(600) 함

이 函次의 宋新譯經<sup>55)</sup>(宋新譯經 B-1)은 咸平 2년(999) 11월 이후 大中祥符 4년(1011)까지의 新譯經으로서 祥符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 函次 이후의 모든 경전은 현존하는 初雕藏本이 없고 守其의 校正別錄에도 일체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函次 이후의 모든 경전은 再雕藏의 雕造 때 입장된 것으로 추정된다.<sup>56)</sup>

18) 宣(601) 함 ~ 禹(611) 함

이 函次의 宋新譯經<sup>57)</sup>(宋新譯經 B-2)은 大中祥符 5년(1011) 5월 이후 天聖 5년(1027) 3월까지의 新譯經으로서 天聖錄, 景祐錄에 수록되어 있다.

19) 跡(612) 함 ~ 嶽(617) 함

이 函次의 宋新譯經<sup>58)</sup>(宋新譯經 B-3)은 天聖 5년(1027) 3월 이후 景祐 3년(1036)까지의 新譯經으로서 景祐錄에 수록되어 있다.

20) 宗(618) 함 ~ 塞(628) 함

이 函次의 宋新譯經<sup>59)</sup>(宋新譯經 B-4)은 景祐 3년(1036) 이후 元豐 2년(1079)까지의 新譯經인데 <sup>60)</sup> 출처는 아직 미상이다.<sup>61)</sup>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p.705).

54) 한편, 이 法苑珠林의 函次는 初雕藏의 목록으로 추정되는 更(571)함의 大藏目錄 뒤에 배열되고 있지만 初雕藏本 法苑珠林이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千惠鳳은 法苑珠林의 간행이 初雕藏의 雕造가 一段落된 뒤에 追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查研究』, 財團法人 成保文化財團, 1988. p.201).

55) 趙城藏에는 宅(538)함 ~ 傾(552)함에 해당된다.

56) 小野玄妙는 遵(586)함부터 塞(628)함까지의 신역경이 文宗朝以後에 續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p.705).

57) 趙城藏에는 綺(553)함 ~ 密(563)함에 해당된다.

58) 趙城藏에는 勿(564)함 ~ 罽(569)함에 해당된다.

59) 趙城藏에는 楚(570)함 ~ 號(580)함에 해당된다.

60) 紫(627)함·塞(628)함의 父子合集經 20卷은 元豐 年間에 漢譯된 것이다. 그리고 元豐 원년(1078) 10월에 공식적인 역경활동은 중단되었다(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145. 1984. p.40).

21) 鷄(629)함

이 鷄(629)함의 續一切經音義 10卷은 再雕藏에 처음으로 편입된 것이다. 遼 統和 5년(987) 경에 燕京 崇仁寺의 希麟이 찬술한 音義書인데, 慧琳의 一切經音義를 이어 開元錄藏 이후의 新譯 經典 110部 중의 難字, 梵語 등에 대해서 음의 를 달고 訛字를 교정한 저술이다. 출처는 아직 미상이다. 本書는 弘法入藏錄<sup>62)</sup>에 수록되어 있지만 宋·元·明藏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오로지 再雕藏에만 수록 되어 있다.<sup>63)</sup>

22) 田(630)함 ~ 洞(639)함

이 函次의 一切經音義 100卷은 唐 元和 2년(807)에 慧琳이 歷代 音義를 刪補 하여 찬술한 音義書로서 再雕藏에 처음으로 편입된 것이다. 출처는 아직 미상이다. 本書는 弘法入藏錄에 수록되어 있지만 宋·元·明藏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오로지 再雕藏에만 수록되어 있다.<sup>64)</sup>

이상에서 분석한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再雕藏·大藏目錄의 千字文 函次 帙號 別 分析”

[再雕藏의 函次]            [收錄된 經典]            [趙城藏의 函次]

- ① 天(1) ~ 英(480) : 開元錄藏 경진 480 帙 : 天(1) ~ 英(480)
- ② 杜(481)~ 觀(510) : 宋新譯經 A            : 杜(481)~ 觀(510)
- ③ 振(511)~ 侈(515) : 新集藏經音義隨函錄 30 책 5帙 : 振(511) ~ 世(513)<sup>65)</sup>

61) 中村菊之進은 元豐傳法院新編法寶錄(지금은 失傳 되었지만 景祐錄 이후의 譯經을 수록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經錄임)에 준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 1984. p.40).

62) 弘法藏은 元 世祖 至元 14년(1277)에 칙명을 받아 至元 31년(1308)년 완성한 대장경인데, 一說에는 趙城藏에 의거하여 개편된 것이라고 한다(佛光大辭典, p.1009).

63) 佛光大辭典, p.6857 및 6858.

64) 佛光大辭典, p.6858.

65) 趙城藏에는 初雕藏과 같이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이 아닌 廣品歷章이 수록되어 있다.



大藏目錄의 분석을 통해서 再雕藏과 大藏目錄의 構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再雕藏과 大藏目錄은 顯宗朝 入藏 經典, 文宗朝 入藏 經典, 義天以後 入藏 經典, 再雕藏 入藏 經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結言에 대신하고자 한다.

“再雕藏·大藏目錄의 構成”

甲. 初雕藏 入藏 經典

A. 顯宗朝 入藏 經典(開寶藏 本藏)

① 天(1) ~ 英(480) : 開元錄藏 경전 480 帙

B. 文宗朝 入藏 經典(開寶藏 續刊 A)

가) 宋新譯經 A

② 杜(481)~穀(510) : 宋新譯經 A

나) 御製

④ 富(516)~輕(520) : 宋 太宗 御製

다) 續開元錄藏 經典<sup>67)</sup>

⑤ 策(521)~實(524) : 新譯大方廣佛華嚴經 40卷 4 帙

⑦ 穉(529)~合(548) : 貞元錄藏 경전

⑩-㉑ 惠(556) : 續開元錄 3卷

라) 三藏集傳

⑩ 霸(572)~何(585) : 法苑珠林 100 卷

C. 義天以後 入藏 經典(續貞元錄藏 經典)

⑥ 勒(525)~銘(528) : 新華嚴經論 40卷 4 帙

⑧ 濟(549)~綺(553) :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

⑩-㉑ 惠(556) : 續貞元錄 1卷·釋法琳別傳 3卷

⑪ 說(557)~丁(560) : 貞元錄 30卷

67) 再雕藏에서의 續開元錄藏 경전의 배열 순서는 續開元錄 入藏錄의 순서가 아닌 續貞元錄 入藏錄의 순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D. 其他(初雕藏 入藏時期 未詳 經典)

⑬ 勿(564)~寔(567) : 大般涅槃經 36卷

⑭ 寧(568)~楚(570) : 佛名經 30卷

乙. 再雕藏 入藏 經典

가) 宋新譯經 B(開寶藏 續刊 B)

⑰ 遵(586)~精(600) : 宋新譯經 B-1

⑱ 宣(601)~禹(611) : 宋新譯經 B-2

⑲ 跡(612)~嶽(617) : 宋新譯經 B-3

⑳ 宗(618)~塞(628) : 宋新譯經 B-4

나) 再雕藏의 新編入錄

③ 振(511)~侈(515) : 新集藏經音義隨函錄 30책 5帙

⑨ 廻(554)·漢(555) : 太宗地玄文論 20卷·釋摩訶衍論 10卷

⑫ 俊(561)~密(563) : 校正別錄 30卷

⑮ 更(571) : 大藏目錄 3卷

㉑ 鷄(629) : 續一切經音義 10卷

㉒ 田(630)~洞(639) : 一切經音義 100卷

<참고문헌>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145. 1984.

郭朋. 「宋元佛教」. 福建人民出版社, 1985.

鄭駟謨. 高麗佛典目錄研究, 清浪鄭駟謨博士 華甲紀念論文集編纂委員會, 1990.

姜順愛.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7집(1994).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연구 - 開元釋教錄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1輯(1995).

姜順愛.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 體系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2輯(1996).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構成의 累加的 性格에 관한 研究, 大藏經의 世界, 東國譯經院, 1999.

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查研究」, 財團法人 成保文化財團, 1988.

羅炤. “《契丹藏》與《開寶藏》之差異,” 文物. 1993年 第8期.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5집(2003).

K C I